

안녕하세요 신레아 작가입니다. ^^
촬영본 정말 열심히 촬영하셨습니다!
구도도 좋고 예쁜 그림을 많이 담아오셔서 편집 때 유용할 듯 해요.
현장의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으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다양하게 찍어 오시면
재료가 풍부해지는 만큼 편집시에 어떻게든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편집을 앞두고 다소 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을 배치할지 메모를 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 개요

-> 할머니께 가는 길

-> 할머니 집과 간단 정보 소개

-너무 자세히 x, 오늘은 손자와 둘과 살고있는 어느 동네 할머니 댁에 간다 정도
-제목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목이 <내 인생 노래 처방~>이런 식이면 오늘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 라던지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니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간단한 목적 소개..

-> 할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 (1) 할머니 살아오신 이야기, (2) 손자 사랑과 걱정

-> 손주 영재와의 만남

-> 노래교실 선생님과 수업(손자도 참여)

-> 만들기

-> 노래교실 선생님의 소감

-> 할머니와의 작별인사

이 순서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할머니 살아오신 이야기 부분이 너무 길거나 편집이 어려우면,

그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시고

아예 손자 영재 이야기로 포커스를 맞추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적어본 다음에는

촬영본을 다시 한 번 쪽~ 보면서

저 주제들에 들어맞는 화면이나 행동, 말소리를 순서대로 배치해 봅니다.

이때 꼭 살리면 좋겠다는 부분은 따로 잘 기억해 둡니다.

세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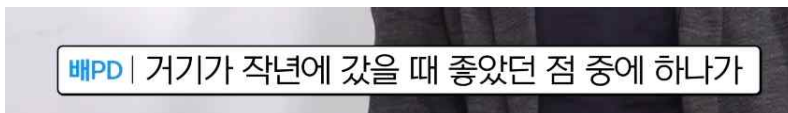
필요 없는 화면(못 쓰는 화면)과 소리를 지웁니다.
너무 흔들렸거나, 잡음이 끼었거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들리는 것들은 지웁니다.

네 번째,

편집을 시작하는데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막이 들어갈 시간, 내레이션 목소리가 들어갈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겁니다. 할머니의 인터뷰나 중요한 장면들 앞뒤로 어떤 목소리가 들어가야 할지 메모해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 보면서 분량을 조절해 보세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는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편집이 끝나면 자막과 기타 배너 등을 넣어 줍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에는 할머니 댁으로 갈 때 <충남 당진군 ㅇㅇ면>
그리고 끝날 때 복지관 로고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자막'...!



요즘 유튜브 자막들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자막을 깔아 주는데요.
만약 녹음상태가 좋지 않다면 위 사진처럼 누가 말하는지 화자의 이름도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또, 이번 영상은 노래 선물이 메인인 만큼 노래 제목과 가사 자막도 꼭 넣어 주세요. 요즘 미스트롯의 영향으로 노래 가사는 어르신들이 잘보이게 큼직~ 하게 넣던데 귀여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기타,

영상을 보다 내레이션으로 넣어볼만한 메모들을 적어봤습니다.

“복지관에서만 만나던 할머니 댁에 와보는 건 처음입니다.”

*“할머니를 기다리는데만 익숙해진 우리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의 입장이 되어 이 길을 찾아갑니다.”*

“비탈길에서 고꾸라져 있던 할머니를 발견한 그 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중했던 이웃들도 세월따라 하나 둘 떠나고,
이제 몇몇 어르신만 남아 마을을 지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참고 영상,

<https://youtu.be/fUpIEbPRJQk> <다큐3일>

다큐 3일은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영상과 가장 톤이 비슷한 영상이에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는 동안 화면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인터뷰 자막은 어떻게 썼는지 등등 유심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